

다시 찾아온 한가위, 한가한 전통시장

4인 가족 추석 상차림 전통시장이 22.9% 저렴 ... “덤과 흥정이 있는 전통재래시장으로 오세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으나, 전통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날로 줄어 재래시장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추석을 일주일 가량 남겨둔 지난 3~4일 주말과 휴일로 이어지는 이틀 동안 간성재래시장은 평소처럼 썰렁해 명절 대목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거진 재래시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고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고성사랑 상품권 이용을 홍보하고 있으나 행정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발걸음은 늘지 않고 있다.

고성군은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이 감소해 지역상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

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매주 금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고성사랑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간성시장과 거진시장 상인회에서는 값싸고 질 좋은 제수용품과 지역상품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추석맞이 할인 및 덤 주기 행사를 운영하는 등 친절한 고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재래시장을 애용하는 주민들은 재래시장의 장점으로 대형마트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을 꼽는다. 또 덤이 있고, 흥정을 해서 가격을 깎을 수 있는 것도 재래시장만의 장점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3개의 품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이 22.9%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기준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대형마트는 평균 23만8천,842원이 필요했으나 전통재래시장은 18만4,198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5만4,644원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성군은 음식점, 개인서비스업소, 숙박업소 등 500여개



고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이용객들이 뜸하기만 하다. 지난 3일 오후 간성재래시장 모습.

업소에 서한문을 발송해 추석물건을 개최해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요청하고, 2일에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를 개최해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자체를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추석 상차림 간편하게 하세요”

고성해양심층수 씨푸드, 제수용 건어물세트 판매 ... 코다리·참가자미 등

“올 추석 상차림은 고성해양심층수로 만든 명태 코다리와 참가자미로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거진 소재 한양식품(대표 서무경)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고성해양심층수 씨푸드’는 추석을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맛 좋고 저렴한 제수용 건어물세트를 판매한다.

고성해양심층수 씨푸드는 강원 심층수와 원수공급계약을 맺고

심층수로만 수산물을 씻어 말리기 때문에 수산물 고유의 맛에 미네랄 성분이 첨가돼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좋다.

명태 코다리(갈꿈이)는 1팩 500g에 6,900원으로, 명태 3마리를 먹기 좋게 잘라 포장한 것이다. 해양심층수로 갈끔하게 가공했기 때문에 팩에서 꺼내 물로 한번 씻은 뒤 바로 요리하면 된다.

참가자미의 경우 3마리가 1팩인데 큰 것은 15,300원, 작은 것은 11,500원이다. 팩에서 꺼내 물로 한번 씻은 뒤 그대로 참가미 조림과 구이를 해 먹으면 좋다.

가지미 세고시 회무침은 120g 1팩에 6,800원이며, 초고추장도 들어있다.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수돗물에 서서히 녹인 뒤 초고추장과 야채, 참기름 등을



고성해양심층수 씨푸드가 판매하고 있는 명태 코다리(갈꿈이)와 세고시.

넣고 버무려서 바로 먹으면 된다. 한양식품 서무경 대표는 “고성해양심층수 씨푸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주문·판매하고 있으나,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며 “공장에 와서 직접 구매하실 경우 1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문의 : 070-4159-7234〉

최광호 기자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이노와이어(07349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시장은 1800선을 회복하며 8월 초 급락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하면서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흐름이다. 지수를 돌려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움직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상승과정에서 대형주의 강세 흐름은 당연하며 그러한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매수세는 하나의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그 이상의 상승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현물 시장에서 자신들의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전일까지의 흐름은 파생시장 험겨투기의 여파도 있는 상황으로 대형주 위주의 지수반등이 만들어졌다. 이제는 현물 시장이 중심으로 나서야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대형주의 상승이라고는 하지

만 대부분 지수의 흐름과 함께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의 상승으로 바다에 대한 확인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야 할 시점으로 외바닥 종목이 아닌 쌍바닥 종목들이 출현해야 추가적

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결국 거래소의 2000선 시도는 코스닥 시장이 먼저 전 고점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 고점부근에서 횡보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위치의 종목들이 거래소보다 코스닥 시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에 코스닥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종목으로서 이노와이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일봉의 모습보다도 월봉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종목들이 추세가 무너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 종목은 신고가를

준비하고 있다. LTE관련 수혜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있으며 기관의 꾸준한 주가관리가 이상적이다.

22000원을 넘어서면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는 만큼 20000이하의 가격대에서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매매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노선은 18000원으로 설정하고 이탈 시 신고가 흐름이 무산될 것으로 여기고 위험관리 우선하면 될 것이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